

노인의 성공적 노후 영향요인 분석 : 가구유형별 집단비교

장신재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Elderly's Successful Aging: Group Comparison by Household Types

Cin-Jae Chang

Professor, Dept. Social Welfare, Seoul Jangsi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수준을 확인하고, 각 가구유형별로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여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4차 개인용 조사와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인가구 699명, 부부가구 1,412명,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238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성공적 노후 수준은 1인가구가 부부가구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1인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경제적 독립, 집안일, 이웃관계, 가족관계, 자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부가구의 경우 경제적 독립, 신체적 건강, 친구관계, 자녀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부와 자녀가구는 신체적 건강과 친구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노인, 성공적 노후, 영향요인, 가구유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two: first, to identify success level of elderly's Aging by their household types and secon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ag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successful life of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699 single household, 1,412 couple household and 238 couple/child household data in personal survey and supplementary survey of the 4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evel of successful later life of single household is lower than that of couple or couple/children househol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aging in single household. The results showed that economic activity, economic independence, housework, neighborhood affairs, family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conomic independence, physical health, friend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were found to affect in couple household. Physical health and friendship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for successful aging in couple/child household.

Key Words : Elderly, Successful Aging, Factors, Household Type, Single-Person Household

1. 서론

2017년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로 17년만에 고령사회로 초고속 진입하였다[1].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하여도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26년 경에는 전체 인구의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 그 양과 속도에 비추어 노인 관련 제도적 설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뿐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개인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복지적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생애기의 후반부인 노년기에는 잘 사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성공적인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성공적 노후는 ‘노년기에 신체, 심리, 사회 등과 같은 다차원적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해 가는 것[2]’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공적 노후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3]은 노인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과 삶의 만족 및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에 [4]는 개인이 노년기에 제기되는 발달적, 사회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려는 이론적, 실증적 노력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5].

성공적 노후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성공적 노후의 개념과 내용의 유형화에서 시작되어[6-8],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5,9,10]로 발전되었으며, 다양한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11-17]. 기존 연구에서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 요인, 건강 요인, 사회적 관계 요인 등을 들 수 있으며 [9-20], 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개별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15, 21-23]. 그리고 각 요인들은 연구에 따라 다소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다[13, 15, 16, 24-27]. 예를 들어, 경제적 요인은 연구마다 소득, 경제적 노후 준비, 경제활동 참여 등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하나의 변수를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비가 경제적 측면에서만 대비하는 것으로는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성공적 노후와 관련된 연구들은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신체적, 정서적, 사회참여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준비를 강조한다[11,28]. 또한 이러한 다차원적인 성공

적 노후 관련 요인들은 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게 된다[29,30]

한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부부가구와 노인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대단히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노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인만으로 구성된 1인가구 및 부부가구 비율이 2008년 66.8%에서 72%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20]. 더욱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이 30%를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노인의 비율은 24.4%로 나타났다. 이렇듯 최근 가구유형의 변화에 따라 노인부부나 노인 1인가구의 인구 특성이 반영된 관련 요인 검증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성공적 노후 관련 요인도 기존의 경제적 요인 중심의 단편적으로 나열된 몇 가지 요인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노년기 삶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요인들을 체계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가구유형이나 혼인상태, 가족수를 성공적 노후의 독립 변수로써 활용한 기존 연구들[28-35]을 검토하였을 때, 가구유형에 따라 성공적 노후 관련 요인들이 달라짐을 합리적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구유형이 점차 노인부부와 노인 단독으로 축소됨에 따라 집안일, 식사 준비, 세탁, 금전관리 등 삶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리 요인을 성공적 노후와 관련한 차원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며[14, 18, 28-35] 이러한 요인들 이러한 현상이 증가할수록 그 중요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36], 이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하고, 기본적인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14]. 특히,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한국문화의 특성상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는 노후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년기 부부의 지지적 관계와 친밀감은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켜 성공적인 노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7]. 또한 자녀관계 역시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 노인들은 자녀에게 투영된 삶, 자녀의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이 성공적 노후라고 인식한다. 자녀와의 관계는 심리적 안녕감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후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37,38].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관리뿐만 아니라 경제, 건강관리, 사회문화, 사회적 관계 등 노년기 삶의 차원을 전반적으로 고려

하여 각 차원의 요인들이 노인가족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리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가구유형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적 제언을 위해서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 및 자녀가구의 세 가지로 가구유형을 구분하고, 가구유형별로 성공적 노후 수준과 그 영향요인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성공적 노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다룸에 있어 노년기 삶의 중요 부분을 포괄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제한적으로 다뤄왔던 영향요인 변수들을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구유형별로 집단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보았다는 점에서 가구별 프로그램이나 정책수립에 중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대상은 전국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만 50세 이상 개인 및 그 배우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제4차 개인용 조사(2011년 조사)와 부가조사(2012년 조사)의 조사 시점에 차이가 있어 두 자료를 머지하여 사용하였다.¹⁾ 우선 제4차 개인용 조사에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만을 선택하고, 이 중 개인용 조사와 부가조사의 가구유형이 동일한 총 2,349명(1인가구 699명, 부부가구 1,412명,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238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²⁾

2.2 변수측정

2.2.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성공적 노후이다. 성공적 노후 척도는 부가조사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2]’에서 개발한 변

수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성공적 노후를 ①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② 자기통제를 잘 하는 삶, ③ 부부 간의 동반자적인 삶, ④ 자녀의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한다. 이 중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③번과 ④번 차원은 비해당에 응답한다.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사용하여 5점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노후가 성공적이라고 인식한다. Cronbach's α 계수가 .94로 나타나 변수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2.2.2 독립변수

본 연구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경제활동, 경제적 독립, 여가시간 활용, 일상생활 관리(집안 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금전관리, 약 챙겨먹기),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이다. 경제활동은 현재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것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0, 참여하면 1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적 독립은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다.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0, 가지고 있으면 1로 재코딩하였다. 여가시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가시간에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여가활동의 종류와 총 소요시간을 묻고 있다. 본 연구는 주중 여가시간과 주말 여가시간의 총합을 활용하였다. 여가시간의 최소값은 2시간이며, 최대값은 168시간이다.

일상생활관리는 일상생활 시 본인의 관리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문항 중 5문항(집안 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금전관리, 약 챙겨먹기)를 활용하였다. 혼자서 할 수 없음을 0,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을 1, 혼자서 할 수 있음을 2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변수로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를 사용하였는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인 이웃, 친구, 가족, 자녀,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각 관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2.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기존 연구[11-16]에서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사

1)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가조사 자료에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개인용 조사 자료에서 활용하므로 변수 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

2)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후 척도는 2014년 이후 데이터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성공적 노후를 파악한 데이터로는 본 2012년 부가조사의 데이터가 가장 최근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용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구유형별로 노인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가구유형별 성공적 노후 및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ANOVA 분석과 집단 간 사후검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가구유형별 노인의 성공적 노후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유형별(① 1인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 및 자녀가구)로 성별, 교육수준, 연령을 분석하였다. 여성 노인 비율이 제일 높았던 가구유형은 1인가구(86.6%)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가구(41.9%), 부부 및 자녀가구(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은 1인가구(42.5%)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부부가구와 부부 및 자녀가구는 각각 44.0%와 34.1%로 초졸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부부 및 자녀가구 노인 중 고졸 이상인 경우도 33.2%로 다른 가구유형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분석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인가구 노인이 74.71세로 가장 고령이었다. 그 다음이 부부가구 노인(71.94세), 부부 및 자녀가구 노인(69.51세)로, 다른 가구원과 거주하는 노인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χ^2 검증 후, F-test를 통해 가구유형별 연령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test를 통해 나타난 Table 2와 Table 3의 결과는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가구유형별 주요변수의 차이

가구유형별 주요변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후 점수는 부부가구 노인(3.46)이 부부 및 자녀가구 노인(3.43) 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1인가구는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5점이 성공적 노후 변수의 최고 점임을 고려할 때, 부부가구와 부부 및 자녀가구 노인의 경우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1인가구 노인은 보통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분산분석 결과 가구유형별 성공적 노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독립변수를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총 여가시간은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비슷하며, 부부 및 자녀가구가 근소하게 낮았다. 집안 일하기와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는 가구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모두 1인가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가구, 부부 및 자녀가구의 순이었다. 값이 높을수록 생활관리의 독립성 또한 높음을 고려할 때, 1인 가구일수록 집안일과 식사준비, 세탁과 같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전관리와 약 챙겨먹기는 가구유형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①	②	③	χ^2
gender (N=2,349)	male	94 (13.4)	820 (58.1)	154 (64.7)	415.066 ***
	female	605 (86.6)	592 (41.9)	84 (35.3)	
educational level (N=2,314)	lack of schooling	296 (42.5)	235 (17.0)	26 (11.2)	247.257 ***
	primary school	280 (40.2)	609 (44.0)	79 (34.1)	
	middle school	60 (8.6)	239 (17.3)	50 (21.6)	
	≥high school	61 (8.8)	302 (21.8)	77 (33.2)	

***p<.001, ① Single person household, ② Living with spouse, ③ Living with spouse and children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2,349)

variables		①	②	③	F
age	Mean	74.71	71.94	69.51	112.753 ***
	SD	5.91	4.96	3.73	

***p<.001, ① Single person household, ② Living with spouse, ③ Living with spouse and children

신체적 건강상태는 부부가구, 부부 및 자녀가구, 1인가구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심리적 건강상태는 부부 및 자녀가구, 부부가구, 1인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 건강관리와 관련된 각 변수들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관계에 해당되는 각 이웃, 친구, 가족, 자녀, 형제관계는 모두 부부가구, 부부 및 자녀가구, 1인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가구유형별 각 관계 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1인가구 노인은 가족, 자녀,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관계가 다른 가구유

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variables		①	②	③	F
successful aging (N=2,349)	Mean	2.79	3.46	3.43	319.693** *
	SD	0.63	0.56	0.58	
leisure time (N=2,348)	Mean	31.24	31.31	29.46	0.670
	SD	23.86	22.93	22.10	
housework (N=2,349)	Mean	1.90	1.86	1.81	4.929 **
	SD	0.34	0.44	0.50	
meal preparation (N=2,349)	Mean	1.91	1.82	1.77	12.685 ***
	SD	0.33	0.49	0.53	
wash clothes (N=2,349)	Mean	1.88	1.80	1.75	9.036 ***
	SD	0.37	0.52	0.56	
money management (N=2,349)	Mean	1.90	1.91	1.91	0.195
	SD	0.36	0.37	0.34	
take medicine (N=2,349)	Mean	1.97	1.96	1.97	1.710
	SD	0.20	0.27	0.18	
physical health (N=2,348)	Mean	2.51	2.80	2.79	26.673 ***
	SD	0.85	0.87	0.95	
psychological health (N=2,348)	Mean	3.06	3.31	3.34	23.393 ***
	SD	0.85	0.81	0.87	
with neighbors (N=2,348)	Mean	3.36	3.48	3.39	5.914 **
	SD	0.81	0.76	0.76	
with friends (N=2,348)	Mean	3.15	3.46	3.31	24.651 ***
	SD	1.04	0.86	0.90	
with family (N=2,348)	Mean	2.91	3.63	3.53	147.953 ***
	SD	1.32	0.64	0.69	
with children (N=2,347)	Mean	2.90	3.60	3.51	123.522 ***
	SD	1.36	0.73	0.69	
with siblings (N=2,347)	Mean	2.67	3.37	3.29	122.687 ***
	SD	1.30	0.81	0.76	

p<.01, *p<.001, ① Single person household, ② Living with spouse, ③ Living with spouse and children

3.3 가구유형별 성공적 노후에 영향 미치는 요인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구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각 가구유형별 설명력은 1인가구 27.3%, 부부가구 20.7%, 부부 및 자녀가

구 35.6%로 나타났다. 먼저 1인가구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beta=.08, p<.05$), 경제적 독립($\beta=.15, p<.001$)이 유의하였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인식할수록 성공적 노후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관리에 있어서는 집안일($\beta=-.14, p<.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안일을 잘 수행하지 못 할수록 성공적 노후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이웃관계($\beta=.08, p<.05$), 가족관계($\beta=.14, p<.05$), 자녀관계($\beta=.19,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웃관계와 가족관계, 자녀관계에 만족할수록 성공적 노후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가구 노인의 경우 경제적 독립 ($\beta=.10, p<.001$)이 유의하였다. 즉, 경제적으로 독립할수록 성공적 노후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상태($\beta=.08, p<.01$)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미하였다. 즉,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성공적 노후인식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친구관계($\beta=.18, p<.001$)와 자녀관계($\beta=.13, p<.001$)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및 자녀가구 노인의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beta=.18, p<.05$)가 유의하였다. 신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친구관계($\beta=.24,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신의 노후를 성공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N=2,349)

variables	①		②		③	
	b	β	b	β	b	β
economic activity	0.12	0.08*	0.04	0.04	0.06	0.05
economic independence	0.22	0.15***	0.11	0.10***	0.13	0.11
leisure time	0.00	0.00	0.00	-0.01	0.00	-0.05
housework	-0.25	-0.14*	-0.03	-0.02	0.06	0.05
meal preparation	0.11	0.06	0.10	0.09	-0.20	-0.18
wash clothes	0.10	0.06	0.03	0.03	0.21	0.21
money management	0.03	0.01	0.03	0.02	-0.02	-0.01
take medicine	0.18	0.06	0.13	0.06	-0.19	-0.06
physical health	0.02	0.03	0.05	0.08**	0.11	0.18*
psychological health	0.03	0.04	0.01	0.01	0.00	-0.01
relationship with neighbors	0.06	0.08*	0.05	0.06	-0.11	-0.14
relationship with friends	0.05	0.08	0.12	0.18***	0.15	0.24**

relationship with family	0.07	0.14*	-0.05	-0.06	0.09	0.11
relationship with children	0.09	0.19**	0.10	0.13***	0.00	0.00
relationship with siblings	-0.01	-0.02	0.02	0.03	0.06	0.07
gender	0.05	0.03	-0.06	-0.05	-0.12	-0.10
age	-0.01	-0.12**	0.00	0.00	-0.03	-0.18**
educational level	0.04	0.06	0.07	0.12***	0.14	0.26***
R	.522		.455		.596	
R ²	.273		.207		.356	
F	14.104***		19.821***		6.529***	

*p<.05, **p<.01, ***p<.001, ① Single person household, ② Living with spouse, ③ Living with spouse and children

4. 결론

본 연구는 성공적 노후 영향요인들을 통합적,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이 요인들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인가구 노인은 경제적 독립과 자녀관계, 부부가구 노인은 친구관계와 자녀관계, 부부 및 자녀가구 노인은 친구관계와 신체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노인 가구들은 떨어져 살고 있지만 자녀관계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는 2차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가족, 친구, 이웃 등 1차적 관계망이 중심이 된다고 밝힌 [3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소에 자녀와의 교류나 자녀의 성장과 출세에 대한 차원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2],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도가 문화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노후준비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힌 [34]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부부끼리 거주하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부가구의 경우 친구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주요한 요인이 된[41] 점에서 사회적·정서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노년기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참여는 노인들로 하여금 통합감을 느끼도록 하며 이를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게 기여한다[25]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이미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하여 어느 정도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이미

획득하였기 때문에 그 외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 노후 설계를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 노후를 구성하는 요소들 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때, 개개인이 지닌 역량과 자원만으로는 성공적 노후를 설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둘째, 가구유형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행 다인가족 중심의 서비스에서 부부가구, 1인가구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1인가구의 경우 일상 생활관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 건강, 관계 등의 전반적인 차원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점차 1인가구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변화 양상을 볼 때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관련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18]. 또한 각 요인에 대한 접근방법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개입도 빈곤 노인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유지가 필요할 것이며, 그 외 노인들의 경우 공적연금제도를 구체화하여 연금수급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을 가능하게 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13,18]. 그 이외에도 은퇴 전후로 다양한 재무설계 프로그램과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연계 및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주요한 요인이므로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1인가구 노인의 경우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가 되어준다거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부가구와 부부 및 자녀가구의 경우 친구관계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친구들과의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가족형태 및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비공식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노년기에 미충족 욕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 관계망을 보완하거나, 노년기의 건강함과 안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식차원에서 관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41]. 또한, 정보화·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핸드폰, 인터넷, SNS 활용기술을 지원

해야 한다[41].

넷째, 부부가구와 부부 및 자녀가구의 경우 신체적 건강 또한 성공적 노후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27]에 의하면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데 유의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REFERENCES

- [1] KOSIS. (2018). Population Census.
- [2] KOSIS. (2018). Population Statistics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 [3] M. H. Kim & K. R. S. (2005).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2), 35-52.
- [4] J. W. Row & R. L. Kahn.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 - 440.
- [5] H. K. Choi. (2011). Perceived Successful Aging and Consumer Needs of Older People in Korean Society.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7(2), 23-38.
- [6] H. S. Park. (2012).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the Preparation for the Old age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their Successful Ag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8, 281-302.
- [7] Wong, P. T. (1989). Personal meaning and successful aging. *Canadian Psychology*, 30(3), 516-525.
- [8] M. K. Joo & S. H. Song (2012). Implicit Validation of the Concept of Successful Aging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2), 505-516.
- [9] M. H. Kim et al. (2005). The Factor of Successful Aging types in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6(1), 91-104.
- [10] H. S. Hong & M. J. Kwak. (2015).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mpact on seniors of leisure satisfaction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studies*, 29(4), 199-214.
- [11] I. Kang. (2016).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nd Preparations for the Later Life among the Baby Boom Cohor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9), 460-472.
- [12] B. M. Kim. (2018).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Middle - aged Women, *Counselling Support Center for Foreigner*, 19(9), 91-99.
- [13] K. Y. Song (2018).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on Successful Aging &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GRI Review*, 20(2).
- [14] J. H. Song, K. S. Chae & J. W. An. (2016). Influencing Factors on Successful Aging in Community-dwelling and Institutionalized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 System*, 23(1), 1-14.
- [15] J. H. Park. (2017). A Longitudinal Effects of Integrated Preparation for Latr Life : Economic Activities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a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4), 189-202.
- [16] J. B. Joo & G. H. Ju. (2018).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Successful Aging of Baby Boom Generation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2), 263-276.
- [17] S. J. Hong, M. K. Youn, S. W. Lee, H. K. Ahn & S. Y. You (2013). Influencing Factors on Successful Aging of Middle and Old 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7), 3275-3283
- [18] K. Y. Song. (2018).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Elderly on Successful Aging &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1), 469-503
- [19] Rowe, J. W. & Kahn, R.L.(1999). Successful aging. Pantheon Books, New York.
- [20] Torres, S. (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2.
- [21] Vaillant, G. E., & Mukamal, K. (2001). Successful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
- [22] S. D. Chung. (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ccessful Aging for Korean Elderly Women and Elderly Me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7(4), 829-845.
- [23] S. G. Lee et al. (2006). The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satisfaction, Loneliness, Successful Aging in Leisure Program Type at Welfare Center for Senior.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19(1), 133-153.
- [24] J. Y. Jeong & J. S. An. (2010).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s on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Me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0(2), 535-550.
- [25] K. H. Kim & J. H. Kim. (2009). A Structural Analysis

- of Successful Aging Factors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1), 71-87.
- [26] Larimore, W. L. & Koenig, H.G. (2001).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the forgotten factor. *Gerontologist*, 42(5), 613-620.
- [27] Crosnoe, R. & Elder, G.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Health and Welfare White Paper.
- [29] H. J. Kim. (2012). Gender Difference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ccessful Aging among Rural Community-dwelling Korean Elde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3), 819-834.
- [30] Chatters, L. M., Taylor, R. J., & Jackson, J. S.(1985). Size and composition of the informal helper networks of elderly Blacks. *Journal of Gerontology*, 40, 605-614.
- [31] J. E. Paik & H. K. Choi. (2005).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Korean Elderly: The Definition, Types, and Predicting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1-16.
- [32] D. B. Kim et al.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revious Preparation for Successful Aging Life of Elderl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8, 325-352.
- [33] G. A. Adams & B. L. Rau. (2011). Putting off tomorrow to do what you want today: planning for retirement. *American Psychologist*, 66(3), 180.
- [34] M. R. Kim. (2013). The effect of pre-older adults' successful age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reparation for older life on th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2, 257-287.
- [35] The Effects of Perceived Successful Aging of the Lower-income Middle-aged on Preparation for later time of their lives.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44, 25-52.
- [36] J. Quadagno. (2010). Aging and the Life Course: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193-217) McGraw-Hill New York: Pantheon Books.
- [37] Cosco, T. D., Prina, A. M., Perales, J., Stephan, B. C. M., & Brayne, C. (2014). Operational definitions of successful aging: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6(3), 373-381.
- [38] Jeong, Y. J., & An, J. S. (2012). Mediating effects of attachment to children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1), 185-206.
- [39] Kim, D. (2008).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lderly's successful aging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1), 211-231.
- [40] J. D. Kweon. (2017). *Age Welfare*, Seoul : Hakjisa.
- [41] Parker, M. H. (2011). Optimizing Resilience in the 21st Century. *Resilience in Aging : Concepts, Research, and Outcomes* (pp.317-330), Edited by Rensnick, B., New York : Springer.

장 신 재(Cin-Jae Chang)

[정회원]



- 1990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문학사)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3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빈곤 가족, 공공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 E-Mail : nagarie@hanmail.net